

말레이시아의 電子工業과 投資環境 (I)

ASEAN 6 개국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工業化를 촉진하여 經濟成長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86~95년의 장기계획인 「工業 Master Plan (IMP) 과 86~90년의 第5次 5 個年計劃을 발표했다. 이 IMP와 第5次 5 個年計劃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의 投資環境 및 電機, 電子工業의 실정을 살펴본다.

1. 어려운 狀況

지금 말레이시아는 이 나라의 主要 輸出商品인 주식, 고무, 목재, 팜油 등이 國際 價格의 대폭적인 변동, 하락에 의한 영향을 받아 상당히 어려운 狀況下에 있다. 그러나 非資源 加工型産業인 電子와 纖維關係 등의 輸出 伸張으로 貿易收支는 好調를 보여 83년의 貿易黒字幅 21 억링기트(MS弗)는 84년 46억 MS弗, 85년 86억 MS弗로 그 폭이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觀光收支의 마이너스, 海外債務에 따른 支払利子 등 投資收支 등의 마이너스로 國際收

支는 대폭적인 赤字를 보이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苦悶 또한 커지고 있다.

85년의 對外債務는 약 400억MS弗로 늘어났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投資獎勵策과 稅制改正 등을 피했다. 그리하여 2년전부터는 對外借入을 억제하기 위해 3년이상의 長期借入에 대해서는 종전의 免稅조치에서 課稅로 정책을 바꾸었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主要產品인 주식, 목재, 고무, 팜油와 같은 1次產品의 가격하락이 작년년부터 대대적으로 일어나 앞으로의 國際收支改善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財政赤字를 메우고 民間活力을 살리는 방안을 도입, 公共事業을 民間에게 맡기고 公共債務를 억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南北을 잇는 高速道路 建設도 民營化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財政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1次產品에 대한 稅收가 당초 예정보다 대폭 차질이 나올 狀況이 되고 있다. 먼저 石油는 1 배럴당 26弗에서 예산을 세웠으나 현재는 12~13弗로 떨어졌다. 또 팜油도 한때 1,500MS弗였던 것이 지금은 약 500MS弗로 떨어지고 주식도 런던의 LME (런던금속거래소)가 폐쇄된 후 29MS弗였던 것이 지금은 8~9MS弗까지 떨어져 財政을 넉넉하게 한다는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현재 이같은 상황에서 1次產品이 회복될 것이라는 데는 기대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새로 「中·長期 Industrial Master Plan=IMP」과 「第5次 5 個年計劃」을作成, IMP를 금년부터 90년까지의 産業育成과 말레이시아 經濟의 發展을 위한 Guide Line으로 하고 아울러 第5次 5 個年計劃을 바탕으로 經濟成長을 촉진시키는 方案을 수립한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中長期 IMP라고 하는 것을 MIDA(말레이시아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工業開發庁)과 UNIDO(United Natio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 工業開發機構)가 공동으로 15개국으로부터 32명의 전문가를 차출, 1 팀으로 작업하여 정부의

각부처, 관련 공업조합과 단체, 이들 관계자들의 협력을 얻어 수립, 작년 정부에 答申하고 금년 2월에公表된 것으로 86년부터 95년에 걸친 中·長期工業開發計劃이다.

2. 製造業을 주축으로

내용적으로는 製造業을 추진역으로 하고 이를 중심으로 말레이시아의 經濟成長을 달성하기 위한 Guide Line적인 것이다. 요컨대 지금까지는 고무, 목재, 주석, 팜油 등 1次產品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말레이시아 經濟를 이제부터는 가급적 높은 附加價值를 부여한 產業으로 發展시켜 아울러 非資源加工型인 現地 製造業의 技術力, 生産開發力을 높이고 競爭力을 提高하여 經濟發展을 꾀하기 위한 指針書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対象이 되는 12개 業종을 우선 業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資源加工型 業種中에서 고무, 팜油, 食糧, 木材, 化學, 非鉄金屬의 7개 業種이며, 非資源加工型 業種 중에서는 電機, 電子, 輸送機器, 機械엔지니어링, 鉄鋼, 纖維, 衣類의 5개 業種이다. 이들은 말레이시아 經濟로서는 불가결한 製品이며 생산적으로는 앞으로 한층 근대화할 必要가 없다면 안되는 것 뿐이다.

또 이와 동시에 이들은 輸出指向型으로 이 가운데는 긴급히 말레이시아 國內의 生産強化를 꾀해 나가야 않으면 안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10년 동안에 육성하는 것도 있다.

이중 非鉄金屬들은 알루미늄, 주석, 錳납 등으로 가공한 製品(퓨터 웨어)을 들고 있으며 이 가운데 주석板, 錳납, 퓨터웨어를 輸出品目으로 지정하고 있다.

窯業가운데에는 시멘트와 관련제품, 板유리, 타일을 들고 있는데 이들은 부피가 크다는 이유로 輸出品目에는 넣지 않았다.

電機, 電子產業은 주로 民生用電子, 電氣機器와 電子部品을 優先機器로 들고 이외에 일부 通信機器 등 産業用電子機器도 고려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輸出產業으로서 育成해 나갈 방침이다.

機械, 엔지니어링部門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뒤떨어진 분야로 알려지고 있으며 機械部品, 鑄造, 鍛造 등의 디자인 能力은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특히 中·小規模의 技術力이 있는 外資의 投資가 기대되고 있다.

纖維, 衣類分野는 輸出產業으로서 중요하며 이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合理的인 개발을 强구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담은 IMP의 계획서는 3권으로 나뉘고 있으며 제1권에는 IMP의 計劃 근거가 되는 手法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2권에는 12개 業종을 12개로 분류, 1業種씩 상세하게 취급하고 있다. 제3권은 아직 公表되지 않았는데 어떠한 政策적인 支援이 필요한가 등을 8개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電氣, 電子業종에 관한 IMP의 내용중에 기존 電子企業에 대한 奨励策, 優待策 등에 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 이들 관계자의 손으로 개정 내지 訂正해야 한다는 提案書를 작성, 곧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第5次 5個年計劃(86~90년)은 말레이시아의 農業, 鈷業, 建設, 製造業, 서비스業의 各 Sector에 관해 작성되었다. 작년을 최종 연도로 한 第4次 5個年計劃(81~85년)은 總生産의 成長率을 보면 初年度인 81년이 6.9% 이하, 82년 5.6, 83년 6.3, 84년 7.6%로 비교적 순조로왔으나 最終年度는 2.8%라는 低成長에 그쳤다. 이 가운데서 總生産에 공헌한 製造業의 寄与率은 80년에 20.0%였던 것이 85년에는 19.1%로 떨어진 것은 誤算이라 할 수 있다.

이번 第5次 5個年計劃에서는 總生産의 成長率을 年率 5.0%로 하고 이 가운데 製造業은 6.4%, 寄与率은 20.5%로 잡아 큰 伸張을 전망하고 있다.

3. 工業化로의 期待

農業 Sector와 비교할 경우 第4次에서는 製造業 Sector 보다도 農業 Sector 쪽이 總生産

에 대한 寄与率이 컸으나 第5次計畵에서는 그것이 逆転되도록 되어 있다. 그만큼 말레이시아의 工業化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5年の 總生産은 593억 MS弗이었다고 하며 이에 대해 5次5個年計畵 最終年度인 90년에는 755억 9,900만 MS弗로 伸張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다.

이 가운데 製造業은 85년이 113億 MS弗이었으므로 寄与率은 19.1%였다. 그것이 90년의 計畵으로는 155억 MS弗로 되어 있으며 寄与率은 20.5%로 증가할 것이라고 期待하고 있다. 이 20.5%라는 숫자는 가장 높은 寄与率이 된다.

輸出은 85年 実績이 전체에서 380억 9,400만 MS弗이었던 데 대해 90년에는 11.1% 증가한 422억 8,000만 MS弗를 계획하고 있다. 全輸出에 대해 製造業의 寄与率은 85년에 32.1%였던 것이 90년에는 41.1%로 增進될 전망이다.

85年の 製造業 成長率은 目標 6%에 두었으나 결과는 4.9%에 그쳤다.

第5次5個年計畵에서는 製造業의 成長率을 年 평균 6.1%에 두고 있다. 第4次計畵 最終年度인 85년에 製造業의 目標을 달성하지 못한 원인으로서는 MIDA의 지가스산 工業開發局長은 「첫째는 세계적인 不況과 保護主義가 대두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資源加工産業 以外の 非資源加工産業 가운데 60~65%를 차지하고 있는 半導體를 포함한 電氣電子와 纖維關聯製品에 너무 의존하여 다른 非資源加工産業 製品의 輸出에 힘쓰지 않은 것을 들 수가 있으며, 끝으로 投資優待策이 정비되지 않았던 것을 들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뜻에서 이번 IMP에서는 優待措置를 改善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成長目標인 6.1%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課題를 들고 있다. 먼저 첫째로 公共投資가 아닌 私企業에 의한 投資를 급속히 확장해 나간다. 정부측은 收入減少 때문에 앞으로 公共投資를 늘릴 수가 없는 財政事情이 있으며 民間活動을 기대한다.

다음 課題로서는 말레이시아 産業은 外國技

術에 의존해 왔다. 그 결과, 半導體, 電氣製品, 纖維의 성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한 뜻에서 이 電子, 纖維 등 2個産業만이 아니라 더욱 多角化하여 産業 Sector를 넓힌다는 뜻에서 技術導入 내지 買取방법을 통해 産業 Sector를 대폭 擴大, 지금 이상으로 輸出指向型産業을 育成하여 輸出 Drive로 国内産業을 키워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다.

第4次5個年計畵(81~85年)에서는 7만 2,900명의 雇傭이 생겼다. 第5次計畵에서는 이를 11만 3,000명으로 늘려 나간다는 計畵이다. 雇傭機會의 성장률로 보면 第4次에서는 1.9%였으나 第5次에서는 2.6%라는 높은 水準에 두고 있다. 政府는 현재 成長이 완만하지만 후반에 가까와지면서 加速的으로 雇傭機會가 증가, 2.6%의 目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勞動力은 현재 590만명이며 85年 製造業에서 56만명의 雇傭実績이 있었다. 90년까지는 11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결과 製造業의 雇傭率은 전체에서 15.4%를 차지하는 계산으로 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政府는 第5次5個年計畵(86~90年)을 內容的으로는 IMP와 同時性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戰略으로서 推進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는 과거의 政策에서 그다지 효과가 없었던 것은 수정하면서 새로운 施策을 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그 戰略으로서 먼저 대부분 加工하지 않고 1次產品을 그대로 素材의 형태로 出荷해 온 것을 加給적 억제하고 이들에 어떠한 附加價值를 주는 加工型으로 優先順位를 두기로 했다.

4. 選択業種부터 開發

나아가서 과거, 關稅로 国内産業을 保護育成한 것이 오히려 過剩保護를 초래, 體質을 強化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이를 수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 공업을 向上시켜 近代化를 꾀하는 한편 대규모공업은 선택적으로 優先順位를 선정, 選択業種부터 開發해 나가는 방법

을 취했다.

優待措置, 優待政策에 대해서는 중진 輸入指向型 産業에 유리해지도록 장려책을 취했으나 이를 輸出指向型으로 수정해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서 産業間의 相乘效果를 높여 나가기 위해 産業間의 聯關效果를 낼 수 있는 政策을 취해 나간다.

輸出振興에는 製品의 品質을 개선, 디자인의 向上, 포장, 시장정보, 연구개발 등을 아울러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셈인데 그러한 것을 종합한 형태의 強化도 戰略으로서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人材養成, 人力面의 技術者는 현재 1만 2,000명이 있으나 95년까지 5만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技術者는 電氣, 電子, 化學, 機械 등의 기술자를 지목하고 있다. 반대로 土木關係의 技術者는 供給過剩이기 때문에 억제할 방침이다. 지금 技術者만이 아니라 너무 建築物이 증가하여 빌딩이 있어도 入住者가 없는 상태에 빠지고 있다.

이 5次 5個年計劃을 지난 4월 하순까지 말레이시아 国会가 승인했다.

이같은 IMP, 第5次 5個年計劃을 추진하는 힘으로서 海外로부터의 技術移轉이 財政貧困, 技術力 不足인 말레이시아로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때문에 MIDA도 外國으로부터의 投資, 技術移轉을 크게 期待, 投資環境造成과 受容態勢 整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환경에서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정치안정인데 말레이시아의 정치는 안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말레이시아의 經濟力에 대해 지가스산 局長은 「현재 不況에 처해 있으며 外貨保有가 넉넉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外貨의 交換禁止라든지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經濟基盤이 대단히 단단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 금년 經濟成長은 3%정도로 낮게 보고 있는데 과거에는 6~8%의 成長率을 보였다. 第5次 5個年計劃에서는 年率 5%의 成長을 전망하고 있으며 다른 ASEAN 諸國과 비교하면 좋은 편이다. 세계에서 天然고무, 팜油, 주석, 목재,

후추의 생산은 제일 많으며 集積回路와 고무장갑의 수출 또한 제일 많다. 에어콘은 제3위」라고 열변을 토해 말했다.

확실히 ASEAN 諸國 中에서는 좋은 편이지만 1次產品의 年初計劃과 비교하면 환율과 需要沈滯에 의한 가격하락 등으로 대폭 차질이 나고 있으며 작년이래 올해도 어려우며 기대하고 있는 製造業의 成長도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 만큼 외국자본의 협력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듯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점에서 이번 IMP와 5個年計劃에는 여러가지 問題點과 數學的으로 무리한 면도 있는 듯하나 經濟成長을 꾀하기 위해 政府가 民間과 더불어 진지하게 추진해 나가려는 왕성함을 느낄 수가 있다. 다음으로 外資에 대한 政府의 자세이다. 지가스산 局長은 계속해서 「정부는 外資를 환영하고 있다. 그 증거로서 MIDA는 세계에 14개의 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年間 50만 MS弗의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각료를 단장으로 하는 投資使節團을 先進各國에 내보내어 권유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外資投資額은 84년 47억 MS弗, 85년 64억 MS弗의 실적을 올렸다. 既存企業의 擴張, 多角化로 승인된 프로젝트 전체의 절반 이상이 外資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면 松下電器는 5개공장이 있으며 샤프는 3공장이 있듯이 확장되고 있다. 外資는 현재 30개국에서 1,500社나 와 있으며 上位 5개국은 1位 日本, 2位 싱가포르, 3位 영국, 4位 미국, 5位 홍콩으로 1, 2位는 항상 바뀌고 있다. 10位圈 밖에 있었던 서독이 최근 6위에 오르는 등 힘을 쓰고 있다.

이외에 지가스산 局長은 外資의 出資率問題, 借入産業基盤 등 말레이시아가 投資環境에서 우수한 점을 들었다.

말레이시아에는 「푸미푸토라」 정책이라는 것이 있다. 「푸미푸토라」라고 하는 것은 고장사람이라는 뜻으로 말레이시아国籍, 回教徒, 말레이시아語로 말하고 말레이인의 風俗, 習慣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목하고 있다. 현재의 말레이시아 首相인 마하틸氏は 이 「푸미푸토라」이다.

이같은 「푸미푸토라」가 말레이시아에서 最多 數 民族인데도 불구하고 中國系나 인도系 民族 등과 비해 작은 收入밖에 얻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개선하여 「푸미푸토라」의 經濟性 地位向上을 지향하겠다는 것도 이번 IMP와 第5次 5年計劃이 노리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푸미푸토라」政策에서는 90년까지 「푸미푸토라」의 經濟的 세어를 22%로 끌어올리고 「푸미푸토라」 이외의 말레이시아인의 세어를 53%, 합쳐서 말레이시아 住民의 비율이 75%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第3者의 눈에는 말레이인 偏重政策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調和라는 것이 대단히 重視되고 있다.

이전에 中國系와 말레이系 人種間에 싸움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 그러한 쓰라린 경험을 두 번 다시 맛보지 않겠다는 생각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으며 이 人種間의 調和를 유지하는 데는 정부도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政策을 추진하고 있다.

雇傭問題에 있어서도 人口比率에 따른 雇傭의 確保, 職責, 配置 등을 Guideline에 실어 企業經營者에게 요청하고 있으며 出資比率 등에 있어서도 「푸미푸토라」 3, 中國 4, 外資系 의 3이라는 비율로 調和를 유지하려는 흔적을 볼 수가 있다.

또 언어는 말레이어를 國語로 설정하고 있으나 中國系가 中國語, 인도系가 인도의 國語를 학교의 정규수업에 넣어 공부하는 데는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고 있는 등 「푸미푸토라」政策이 단순한 人種偏重政策이 아니라는 배려를 볼 수가 있다. 그렇지만 複合民族이라고는 하나 土着民인 말레이系的 입장에서 보면 이른바 「푸미푸토라」가 經濟的으로도 國家의 핵심을 쥐는 지위에 있겠다는 것은 사람의 심리에서 보아도 이상하지는 않다. 힘이나 強制支配가 아닌 實力을 서서히 배양하면서 「푸미푸토라」정책이 침투된다면 그것은 國家의 政策으로서 타당한 것이라 할 수가 있다.

經濟面에서 國民所得의 불균형이라 할까 격차가 대단히 크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그 격

차는 民族間, 都市와 農山村間, 階層間, 業種間에서 볼 수가 있다. 어떤 외교관은 「都市部와 시골의 所得格差는 4~5 배나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쿠알라룸프르 近郊의 세란폴州와 벽지인 페르리스, 케다 등과 비교하면 그렇게 된다. 民族間에서는 中國系的 소득이 가장 높아 가장 낮은 민족과 3 배 정도의 격차가 있다. 업종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인지 숫자는 알 수가 없으나 상당한 格差가 있다. 원인이 무엇이나 하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經濟의 중심을 工業의 발전에 두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工業을 발전시키는 것이 民族間의 마찰을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추세에 맞춘 사람과 맞추지 못한 사람이 나와 이것이 格差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다른 외국 민간인도 이 소득격차를 「푸미푸트라」政策을 추진함으로써 말레이인 가운데서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자가」(말레이시아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의 격차를 만들어 '왔다'고 말하고 있다.

學歷에 의한 格差도 크다. 中·高卒의 初任金은 평균 250~300MS弗인데 대해 大卒者는 약 1,400MS弗로 4~5 배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大學은 겨우 9個校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大卒者의 숫자가 적어 超엘리트가 된다. 이 엘리트들은 대부분이 官公署에 취직을 한다. 사람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民間企業에 까지 大卒者가 많이 돌아가지 않는다. 民間活力을 피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지장이 되고 있다. 民間活力을 추진하는 이상 民間企業에도 많은 엘리트級 人力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부나 國家의 中樞機關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계획을 짜도 그것을 民間企業에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初等級(8~9 년간) 교육은 충실하나 中·高等教育의 量的 擴充이 이제부터라도 필요해질 것으로 본다.

5. 製造業에 注力

같은 말을 產業界의 Infrastructure (社會構造)에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製造業에 注力

表 1 아시아 諸國의 電子工業 比較

	出 荷 比 率 (%)			
	말레이시아	韓 國	싱 가 폴	日 本
産業電子	5.7	16.0	14.8	35.9
民生電子	8.7	38.6	33.3	32.2
電子部品	85.6	45.4	51.9	31.9
計	100	100	100	100

하여 輸出市場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附加價值 産業 加工製造業을 크게 키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말레이시아는 素材加工, 金型製作, 部品 加工, 成型加工 등 중소 규모의 공장설치와 발달이 바람직하며 이번 계획에서는 이것이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東南아시아 諸國에 部品이나 民生電子 機器를 購買 내지 OEM發注를 위해 조사하려는 日本의 電子工業관계자가 상당히 늘었다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1 弗=170~180 엔이라는 엔高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말레이시아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줄을 잇고 찾아 들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에 있는 어떤 회사에 「Sony가 半導體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우리 회사에 와서도 사정을 듣고 갔다」든지 「Aiwa가 全面的으로 라디오 카세트를 싱가포르 공장에 이전시키기 위해 부품 공급사정을 조사해 갔다」는 등등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같은 電子部品の 공급기로서 안성맞춤의 나라가 된 것 같다. 말레이시아의 電子工業을 보면 표 1 과 같이 지금은 IC와 半導體로 대표되고 있다.

다른 아시아 諸國의 電子工業 生産比率과 비교하면 말레이시아만이 극단적으로 電子部品の 비중(82년 85.6%)이 높다. 이 電子部品 속에서도 83년에는 87%, 84년에는 90%라는 半導體·IC의 구성비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말레이시아의 電子工業은 지금 半導體, IC工業이라 할 수가 있다.

IC의 수출수량을 보면 日本보다도 말레이시아쪽이 많으며 세계 제일의 輸出國이기도 하다.

이때문에 MIDA(工業開發庁)도 이번 Master Plan에서는 下辺産業을 넓혀 전체의 균형을

잡기 위해 95년에는 電子部品の 일렉트로닉스 産業에 차지하는 비율을 61%로, 民生電子를 24%, 産業電子를 15%로 하여 電子部品 가운데는 半導體, IC가 80% 정도가 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半導體, IC工業이 말레이시아의 輸出을 伸張하여 日렉트로닉스 産業 發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은 크게 평가되어야 하며 또 民生電子, 産業電子를 發展시키는 基盤이 되는 半導體, IC를 중심으로 하는 電子部品工業의 發展은 앞으로도 重視하지 않으면 안 된다.

表 2 말레이시아 電子工業의 予測

	1984年 (百万MS弗)	1985(概算) (百万MS弗)	1990(전망) (百万MS弗)	
需 要	国内消費	4,464	4,397	8,045
	輸 出	4,757	4,939	8,469
	計	9,221	9,876	16,514
供 給	生 産	5,240	5,616	10,063
	輸 入	3,981	4,260	6,451
	計	9,221	9,876	16,514
比 率	輸出/生産	0.91	0.88	0.84
	輸入/生産	0.76	0.76	0.64
	輸入/消費	0.89	0.86	0.80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85년의 말레이시아의 電子工業 규모는 100억 MS弗에 접근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국내소비와 수출이 거의 同額인 50:50의 비율로 되었다. 그것을 5년후인 90년에는 60% 증가한 165억 MS弗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輸入伸張을 억제하고 輸出을 伸張해 나가려는 방향에 있다.

電子部品외에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고 있는 電子機器(電氣機器는 별도)는 컬러TV, TV 게임 등과 같은 玩具, 퍼스널컴퓨터와 端末機器, 音響機器 등이 있으나 이들은 84년 실적으로 연간 7억 MS弗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電子部品 이외의 電子機器는 싱가포르의 12%, 한국의 11.5%, 대만의 9.5%, 홍콩의 7%의 적은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의 半導體는 IC 메이커의 대부분은 内需用이 아니라 東南亞를 중심으로 日本이나 유럽으로의 輸出이 注流로 되어 있다. 東南亞에서 생산되고 있는 電子

機器는 대부분이 民生電子機器이나 民生電子機器의 全世界 需要의 20%가 東南亞諸國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로부터 東南亞로 半導體, IC의 수출이 많다.

말레이시아의 總輸出額은 83년의 통계로 보면 329억 2,200만 MS弗이다. 이 중 고무, 팜油, 목재, 製材, 주석, 석유 등 1次產品이 약 63%, 電子, 電氣機器 등 工業製品이 약 30%, 기타 7%를 차지하고 있다.

6. 輸出의 12% 차지

工業製品 중에서 電子機器는 75%를 차지하는 40억 5,300만 MS弗(83년)의 수출실적을 올렸으며 이것은 總輸出額의 12.3%를 차지하는 것이다. 電氣機器를 합치면 54억 4,300만 MS弗이 되며 輸出總額의 16.5%를 차지하여 石油의 23.9% 다음가는 2위를 차지하고 있다. 電子, 電機機器業種이 말레이시아의 輸出에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 이 電氣·電子製品 가운데 半導體, IC만으로 약 65%인 35억 MS弗을 차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半導體工業은 7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美·歐·日本의 대기업이 100% 내지 현지기업과의 합작으로 공장을 만들어 가동하고 있다. 日本에서는 東芝, 日立, NEC의 3社, 미국, 유럽은 NS, Intel, TI, Motorola, RCA, GI, Hewlett Packard, Harris, Siemens 등으로 Major Supplier는 20社가 있다. 연간 出荷額은 83년 35억 MS弗, 84년은 46억 MS弗, 85년 半導體 不況으로 前年보다 약 10억 MS弗 떨어졌다고 보아지는데 86년에는 다시 상승하여 84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85년의 不況時에는 半導體工業의 종업원 퇴직자가 증가, 84년 9월 현재 5만명이었던 고용수가 86년 1월 현재로는 1만 2,000명 감소하여 3만 8,000명이 되었다. 이 가운데 해고된 것은 3,000명 정도이며 나머지 9,000명은 自然退職이라고 한다. 이 고용문제로 「美國系의 내셔널 세미컨덕터(NS)가 종업원을 해고했으나 日本系 각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M-

IDA의 마지아씨는 말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電子工業이 展開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는다. 60年代부터 시작하여 약 20年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東南亞 주요국 중에서는 民生電子機器의 생산에서 半導體 이외의 생산품목은 적으며 가장 뒤떨어져 있다. 이에 관해 일본 東芝일렉트로닉스·말레이시아 SD의 森本泰生 사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60年代에 電子機器 선진국의 海外生産展開의 第1波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일본의 라디오, TV 등 民生電子機器의 對美 輸出이 상당히 늘어남에 대해 美國系 내지 歐州系의 民生電子機器 메이커가 이에 對應하기 위해 대만, 홍콩, 한국, 싱가포르 등은 어셈블리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을 시작했다. 그런데 주변국가가 對應할 수 있었는데 말레이시아는 할 수 없었다. 말레이시아가 처음 電子工業 優待策이라든지 自由貿易 地帶 등을 정비하여 受容體制를 갖춘 것은 69년으로 60년대의 마지막 해였다. 電子機器가 海外展開를 시작한 第1波의 時期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 다른 국가보다 늦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는 하나 말레이시아가 受容體制를 갖추어 近代化 路線을 걷기 시작한 후 半導體의 海外展開時代가 71년부터 7년간에 걸쳐 쇄도해 왔다.

이 半導體는 當時 Bonding을 Operator가 顯微鏡을 보면서 작업을 하는 人力이 필요한 것이었으므로 低賃金과 풍부한 노동력을 찾아 美·歐·日 등 각국이 잇달아 대부분이 半導體 메이커가 이 사이에 말레이시아에 進出했다. 왜 진출했느냐 하면 當時 말레이시아에는 1次產品인 고무, 팜油, 木材, 製材, 주석 등의 수출이 호조여서 Country Risk가 없고 경제·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더우기 언어도 영어가 통하는 등의 이유에서 이다. 半導體에서 제일 먼저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것이 71년 미국의 내셔널 세미컨덕터社이다. 그리하여 73년까지의 3년간에 현재 있는 20社가 진출했다. 반대로 이 이후에는 거의 진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첫째는 75년은 半導體의 合理化 시설이 대량으로 나온 時代였음 (P. 69로 계속)

하다. 이는 I/O data base 구조, 간단한 algorithm의 구현, loop control의 구현에 유용하다. High-level language는 computer-based control system으로서 BASIC, FORTRAN, C 등이 사용되며 data acquisition, manipulation of pro-

cess I/O, 복잡한 supervisory control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서 표4,5에 PC의 제어용 언어와 공정 적용 분류를 나타내었다.

(다음 號에 계속)

P. 59에서 계속

을 들 수가 있다. 현재의 Mountor, Bonding Machine 등의 기계가 선을 보이면서 半導体の 어셈블리 工場이 勞働人力 立場에서 市場立地로 변해갔다. 이때문에 日本메이커도 73년까지는 東南亞에 나왔으나 그후에는 市場이 있는 곳, 또는 關稅障壁을 해쳐나가기 위해 美国이나 歐洲 各國으로 진출해 갔다. 요컨대 立地 條件이 달라진 것이다. 当社도 73년에 進出했을 때는 100% 日本으로 가지고 가는 형태를 취했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에 가지고 가는 것은 생산의 15% 정도이며 이보다도 東南亞의 市場에 對應하는 生産拠點으로서의 말레이시아 공장이라는 형태로 使命이 바뀌었다.

日本과 美国의 半導体공장 형태는 같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相違點이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 NEC나 当社도 메모리를 만들고 있지 않으며 東南亞의 民生機器用 主体였으므로 半導体 不況 속에서도 그다지 영향이 없었다. 그래서 이 不況期에 美国系는 自然退職을 포함하여 增雇원을 30% 줄였고 日本系는 8% 정도 줄었다」고 한다. 그 半導体不況도 美国의 컴퓨터 産業 回復에 따라 금년부터 회복, 지금은 말레이시아 공장에서의 생산도 好況期의 85%까지 회복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경과해온 말레이시아의 電子工業. 政

府도 일본으로부터의 공장유치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 이후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현재의 엔高에 따라 日本企業의 生産 전환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이미 東南亞를 비롯하여 海外로의 生産 전환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움직이려는 기업도 적지 않다.

먼저 말레이시아측이 유치기업에 부여하는 Incentive, 技術 Resource, 電力, 물 등 Infrastructure를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는 가이다. 이에 行政지도가 없혀 製造의 認許可, 資本比率, 푸미푸트라 등이 다른 국가에 비교하여 전체의 균형까지 따져 外資가 말레이시아에 進出할 것인지, 다른 국가로 나갈 것인지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生産轉換은 지금의 엔高 環境下에서는 진전되며 그것도 東南亞에서 찾을 경향이 크다.

말레이시아가 진지하게 기업유치, 기술이전을 일본 또는 외국으로부터 얻는다면 역시 外國系에는 낮은 푸미푸트라 政策을 성급하게 내세워서 안된다. 이번 IMP에서 出資比率 등이 약간 수정되어 外資를 우대하는 형태로는 만들었으나 기술이전 외에 문제점도 많다고 한다. 너무 초조하게 생각지 말고 시간을 들여 푸미푸트라가 진실로 강해지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다음 號에 계속)